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 APEC 연구 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우. 137-747)

TEL : 3460-1096 FAX : 3460-1162 E-mail : kimhs@kiep.go.kr

● 발행인 : 李景奎 ● 편집인 : 南相烈

Vol. 9, No. 4, 2006년 12월

제 14차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제14차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WTO/DDA 협상에 대한 정상특별성명 채택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장구두성명
-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진전
 - 부산 로드맵의 실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의 환영 및 승인
 - 2006년 6개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표준모델안의 채택 환영
 - 아·태 자유무역지대 (FTAAP) 등 역내 경제통합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2007년 시행에 합의
 - APEC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의 완성을 환영
- 인간안보의 증진
 - 대테러 활동의 중요성을 재강조 및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결의
 - 2006년도 대테러 이니셔티브 채택 환영
 - 보건 및 긴급재난대응 이슈에 대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평가
 - 에너지 안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긴요함을 확인하고 관련 노력을 촉구
- 보다 강력한 사회와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
 - 균형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기술협력의 중요함을 인식
 - 호주, 한국, 중국, 대만 및 미국의 APEC 지원기금(ASF)에 대한 공여를 환영
 - 중소기업의 중요성 강조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촉구
 - 반부패 및 거버넌스 강화 등 2006년도 APEC 주요 성과의 승인

제 14차 APEC 정상회의가 2006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베트남의 응웬 밉 쩌엣(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을 의장으로 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첫째날인 18일에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둘째날인 19일에는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주제로 하였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투자 자유화의 진전', '인간안보의 증진', '보다 강력한 사회와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하노이 선언)과 함께 북한문제에 관한 의장구두성명을 발표하고 WTO/DDA 특별성명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금번 정상회의의 논의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1. WTO / DDA 협상에 대한 정상특별성명문

정상들은 DDA 협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정상특별성명을 채택하였다. 본 특별성명은 베트남의 WTO 가입 및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축하하고, WTO/DDA 협상이 수준 높고 균형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집단적·개별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WTO 회원국은 수준 높고 균형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협상을 재개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APEC 회원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장구두성명

응웬 밉 쩌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장구두성명에서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행한 7월 4~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루하려는 공동 목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상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1695호 및 1718호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상들은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회담 재개와 관련한 최근의 진전에 고무되어 있다"고 밝히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 2페이지에 계속

3.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진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하노이 실행계획을 환영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무역원활화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불필요한 거래비용 및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역내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보다 나은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들은 또한 높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자유화를 촉진함을 인정하고 금년도 6개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 표준모델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우리나라가 작성한 '분쟁해결'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본 표준모델안 개발 및 개발된 표준모델안의 채택작업은 2007년 6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APEC 회원국들이 본 표준모델안을 향후 FTA 협상 문안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데 활용하게 되면 국별 FTA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함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07년 중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APEC의 강화 움직임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 사이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바 FTAAP의 구상 또한 아·태지역 내 중국의 부상과 ASEAN+3, ASEAN+6 및 미국이 배제된 경제통합 논의를 견제하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FTAAP 구상의 주요 지지 회원국인 호주가 의장국이 되는 내년 2007년에는 FTAAP와 APEC 개혁 등의 분야에서 APEC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상이 작년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고 한국에 의해 수행된 APEC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사업과 관련, APEC 정상들은 본 사업의 완성을 환영하고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해 APEC 회의체 간 관련 활동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인간안보의 증진

APEC 정상들은 보다 안전하고 호혜로운 APEC 역내 교역 환경의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처하는 방안의 강구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대테러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06년도 대테러 이니셔티브 채택을 환영하고 각 회원국들이 이를 각국 상황에 맞추어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보건 및 긴급재난대응 이슈에 대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광역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에너지 안보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긴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기술의 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5. 보다 강력한 사회와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

APEC 정상들은 교육·훈련정책이 빈곤퇴치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며 집중된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이 빈곤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ECOTECH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호주, 한국, 중국, 대만 및 미국의 APEC 지원기금(ASF)에 대한 공여를 환영하였다. 특히, 한국은 APEC의 능력배양 사업 지원부문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백만 달러를 공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상들은 보다 강력한 사회와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한편, 반부패 및 거버넌스의 강화와 관련 2006년도 APEC 주요사업의 성과를 승인하였으며, APEC 강화를 위한 2006년도 개혁 작업의 진전을 평가하고 2007년 이후에도 APEC 개혁 작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최근행사

APEC Ministerial Meeting APEC 합동각료회의

(2006. 11. 15~16, 베트남 하노이)

2006년도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가 Khiem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및 Tuyen 통상장관 주재하에 11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등을 의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각료들은 2006년 APEC의 주요 활동결과를 종합한 각료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본 각료성명은 '다자무역시스템 강화',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 '인간 안보', '경제기술협력', 'ABAC과의 대화', '문화교류 및 관광협력', 'APEC 개혁'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본 각료성명의 서문과 제8항(경제 이슈)에서는 작년 부산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사업인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주목하고 각료들이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 사업과 관련 지난 6월 29일 심포지움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회원국들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현황 및 정책 경험을 공유한 바 있으며 본 심포지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가 9월 다낭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와 관련,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FTA 표준모델안 '6개 chapter'의 채택 등 2005년도 정상들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FTA 표준모델안 중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분야의 표준모델안을 개발하였으며, 부산 로드맵 실행계획의 '다자무역체제지원' 분야를 작성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2006년 APEC의 성과 도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각료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07년 중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종관리회의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각료들은 「2006 APEC 개혁 성과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사무국 강화, APEC 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한편 대테러 관련으로는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승인되었으며 대테러 태스크포스(CTTF)의 활동기한이 2007~08년 2년간 연장되었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박상기 대테러 대사가 내년부터 CTTF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앞으로 APEC내 대테러를 포함한 인간안보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PEC내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분야 활동은 앞으로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락처 : 장제학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E-mail : jhjang92@mofat.go.kr

APEC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 최종고위관리회의

(2006. 11. 12~13, 베트남 하노이)

2006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1월 12~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장인 Le Cong Phung 베트남 외교부 제1차관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일에 있었던 비공식 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WTO/DDA 협상에서 APEC의 역할,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타당성, 부산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실행사항, APEC 개혁, FTAs/RTAs의 표준모델안의 개발 및 APEC 대테러 태스크포스 사업의 최근 진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WTO/DDA 협상의 진전에 관한 논의에서, APEC 고위관리들은 WTO/DDA 협상이 내년까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도에 대해 논의하고 APEC 정상들이 WTO/DDA 협상의 빠른 재개를 위해 강한 결의가 담긴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안을 정상들에게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에서 고위관리들

은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고위관리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본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노력은 APEC의 전반적인 자유주의적·개방주의적 무역 및 투자의 목표와 부합하고 다자 무역시스템과 보완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s/RTAs에 관한 논의에서 고위관리들은 표준모델안 개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FTAs/RTAs 표준모델안들이 각 분야별로 개발되고 나면 회원국들이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FTA/RTA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고위관리들은 또한, 각료회의에 보고될 하노이 실행계획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본 실행계획에는 계획에는 작년 부산에서 APEC 정상들 간에 합의된 바 있는 '보고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13일에 있었던 최종고위관리회의 본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대테러 관련 2006년 사업 성과들이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에는 대테러 태스크포스(CTTF)의 활동기한의 2년 연장과 내년 우리나라의 박상기 대테러 대사의 신임 임명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및 협의체들의 2006년 다양한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우선, APEC 무역투자 위원회(CTI)가 제출한 연례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본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업 거래비용의 5% 감소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내용이 담긴 제2단계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기술선택원칙의 선구자적 접근 이니셔티브(Technology Choice Principles Pathfinder Initiative)를 각료회의에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다. 본 이니셔티브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또한 경제위원회(EC)와 예산운영 위원회(BMC)의 연례보고서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졌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APEC 전염병 확산방지 시뮬레이션 연구(APEC Pandemic Response Simulation Exercise)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을 전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들은 본 회의에서 2006년 개별실행계획(IAPs)에 대한 최종관리회의 의장의 요약보고서(SOM Chair's Summary Report)와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보고서

를 승인했다.

연락처 : 장제학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E-mail : jhjang92@mofat.go.kr

APEC CEO Summit APEC 최고경영자회의

(2006. 11. 17-18. 베트남 하노이)

APEC 최고경영자회의(APEC CEO Summit)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발의 공유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Towards one community-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shared developments)'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APEC 최고경영자 회의는 1996에 시작되어 이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본 회의는 각국 정상, 기업인, 정책입안자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역내 기업들 간의 경제협력과 아·태지역과 역외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거듭났다.

본 회의에는 City group, FedEx, Microsoft, Daewoo, HSBC, AIG 등을 포함, 아태지역 내 많은 기업에서 1200여 명의 최고경영인들이 참여하였다. APEC 정상회의의 의장인 베트남의 응웬 밍 쯔엣(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은 개회사에서 "APEC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보고된 목표를 향한 부산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을 승인할 것이며 본 실행계획에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APEC 역내에 보다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각 회원국의 국민들의 복지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격차를 포함한 각종 개발 격차를 줄이며, APEC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시스템(mechanism)의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APEC 최고경영인 회의의 의장인 Dr. Vu Tien Loc은 본 회의가 "APEC이 현재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의 적절한 논의의 기회"라고 소개했다.

개회식에 이어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본 회의는 15개의 논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경제협력, 투자, 기업환경, 창의성, 개도국의 당면과제 및 장애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락처 : 박철한 차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Tel : 02-3771-0310 Fax : 02-3771-0110
E-mail : chpark@fki.or.kr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7. 1. 15~26. 호주 캔버라)

연락처 : 장제학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E-mail : jhjang92@mofat.go.kr

5th APEC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제5차 교통장관회의

(2007. 3. 28~30. 호주 아델라이드)

연락처 : 최신행 사무관 / 건설교통부 국제협력팀

Tel : 02-2110-8193 Fax : 02-504-6410

E-mail : chois@moct.go.kr

14th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4차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관련회의

(2007. 3. 4~9. 호주 호바트)

연락처 : 박상용 사무관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팀

Tel : 042-481-4366 Fax : 042-472-3272

E-mail : aldskor@smba.go.kr

APEC 교육재단

최근행사

제6차 APEC 교육재단 이사회 개최

(2006. 12. 8. 멕시코 칸쿤)

제6차 APEC 교육재단 이사회가 2006년 12월 8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2006년도 재단의 활동을 살펴보고 재단이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안충영 이사장(중앙대학교 석좌교수), Robert Gard(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명예총장), Carlos Salazar Silva(멕시코 대학 컨소시엄 의장), Zhong-lie Wang(북경대 교수) 등의 이사진과 남상열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6년 기금관리 현황, 사무국 활동, 대 APEC 및 대정부(한국) 활동 및 교육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 세부적으로 보고되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재단의 가장 큰 현안인 '재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 결과 이사진은 APEC 및 각국 정부에 재단의 활동 및 성과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재단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도 수립하였다.

이사진은 이사회에 이어 열린 2006년도 APEC 교육재단 성과사업토론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EF Activities 2006)에도 전원 참석하여 각 사업의 책임자들을 직접 대면한 가운데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사업별 현안에 대해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각 사업 책임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부탁하였다.

2006년도 APEC 교육재단 성과사업토론회 개최

(2006. 12. 8. 멕시코 칸쿤)

2006년도 APEC 교육재단 성과사업토론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EF Activities 2006)가 지난 12월 8일 멕시코 칸쿤에서 제6차 이사회에 이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005년 11월 최종 승인된 6개 사업(베트남 Thainguyen 농업대학 및 미국 코넬대학 사업, 페루 교육부 Huascarán 프로그램 사업, 필리핀 Human Capital Development Group 사업, 한국 송실대

및 캐나다 아카디아 소기업 센터 사업,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 사업, 한국 환경기술진흥원 및 메디오피아 테크놀로지 사업) 중 다섯개 사업의 책임자들(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 경제 대학 사업책임자 제외)과 안충영 이사장을 비롯한 교육재단 이사진, 남상열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 등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성과사업토론회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들의 2006년도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었으며, 각 사업 책임자가 약 30분간의 발표를 마친 후에 이사진 및 토론회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사업별 주요 성과

한국 송실대 및 캐나다 아카디아 소기업 센터 사업의 책임자로서 토론회에 참가한 한경석 교수는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및 MS Word, Powerpoint, Excel 사용법 등과 같은 기초 컴퓨터 교육, 그리고 영어학습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6년도 8월 필리핀 대학에서 개최한 연수 모습과 성과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수 내용으로 사용된 e-learning 웹사이트는 필리핀 주요 인기 웹사이트에 곧 링크될 예정이며, 같은 성격의 e-learning 연수를 베트남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해 2007년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송실대 및 캐나다 아카디아 소기업 센터 사업은 교육재단과 계약 후 학술진흥금 1차분을 지원받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페루의 Huascarán 프로그램의 전 사업 책임자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Manuel Cok Aparcana는 페루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서의 Huascarán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비전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준비, 네트워크 구성, 하부 교육기관 시찰, 가상 교육 시스템 개발 및 ICT 장비 구입 등 앞으로의 세부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Huascarán 프로그램은 페루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ICT 능력 개발을 위한 페루의 국책 교육 사업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이 페루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1월 중 교육재단과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Maria Meliza Tan은 필리핀 Human Capital Development

Group의 eSkwela 사업의 실무 담당자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소외지역에서 정규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주요 목적인 eSkwela 사업은 필리핀 교육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최종 목표인 4개의 eSkwela 센터 구축 중 2개 센터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연수 대상자들을 교육시킬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필리핀의 eSkwela 사업은 교육재단과 계약 후 학술진흥금 1차분을 지원받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 환경기술진흥원 및 메디오피아 테크놀로지 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본 토론회에 참가한 김홍석 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e-learning을 통한 환경기술 훈련 커리큘럼 개발(2개) 등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 환경기술진흥원 및 메디오피아 테크놀로지 사업은 교육재단과 계약 후 학술진흥금 1차분을 지원받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베트남 Thainguynen 농업대학 및 미국 코넬대학의 ICT4D 사업 책임자인 Tran Van Dien 교수는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6개 telecenter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웹서버(www.tuaf.edu.vn/ict4d)를 통해 각 telecenter와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소외 청소년들에게 ICT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재 베트남 Thainguynen 농업대학 및 미국 코넬대학의 ICT4D 사업은 교육재단과 계약 후 학술진흥금 1차분을 지원 받은 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 사업의 책임자인 Vladimir Kryukov 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성과보고서를 통해 ICT 시설 및 장비 구축,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 개설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ICT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을 골자로 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 사업은 교육재단과 계약 후 학술진흥금 1차분을 지원 받은 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연락처: APEC 교육재단 사무국
Tel: 576-7373~4 Fax: 576-5303
E-mail: secretariat@apecef.org

최근행사

PECC 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 회의

(2006. 9. 23 ~ 24, 일본 오사카)

2006년 연구주제인 ‘노령화와 경제성장잠재력(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에 관한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분과의 두 번째 회의(PEO Specialists Meeting)가 9월 23~2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각 회원국별 사례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한진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한진회 연구위원은 “Does Population Aging Slow Down Economic Growth?”를 주제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인구동학적 특징은 빠른 인구구조 변화 속도에 있으며, 이는 고성장 국가들이 출산을 및 인구증가를 하락, 생산가능연령 인구비율의 변화 등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국가가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며 오히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국가들에서 일인당 소득증가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고령화가 향후 한국경제의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현저히 둔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은퇴연령의 상승, 저축행위의 변화, 생산성 향상 등 소위 조정 매커니즘(Adjustment Mechanism)을 고려할 때 그 실제 효과는 흔히 논의되는 것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PECC Executive Committee and Related Meeting - PECC 집행위원회 회의 및 관련회의

(2006. 11. 29 ~ 12. 1, 미국 워싱턴 D.C.)

PECC 집행위원회가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PECC 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회하에서 PECC의 세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Task Forces의 제안 및 선정, 연구 프로그램 설정 및 평가, 국제사무국 활동 관리, 재정 사용 감독 등을 수행하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 회원국에서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PECC 중점 프로젝트 및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금년 처음으로 시작한 State of the Region Report가 11월 13일 홍콩과 APEC 각료회의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시에 홍보되고 Financial Times, CNN 및 홍콩과 베트남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등 성공적으로 출간된 것을 축하하였다. State of the Region Report는 기존의 다른 출판물들과는 달리 역내 전문가들의 의견(opinion)을 담고 있어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심을 보인 언론이 많았던 만큼 향후에도 각국의 여론지도급인사(opinion leaders)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questionnaire)를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 위원회가 동시에 관련 이벤트를 준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내년 개최될 PECC 총회(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17차 PECC 총회는 ‘Managing the Challenges of Growth’를 주제로 2007년 5월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의제는 현재 PECC에서 진행 중인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번 집행위원회에 앞서 11월 29일에는 ‘아태지역 채권시장 발전(Bond Market Development in the Asia Pacific)’을 주제로 PECC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채권시장과 남미 채권시장의 발전 현황과 발행국통화표시채권시장(Currency Bond Markets)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논의하였으며 또한 채권시장 개발에 있어 범태평양지역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제4차 미국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연차회의가 ‘아시아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와 미국의 대응(Fundamental Change in Asia and the United States Response)’을 주제로 개최되어 역내 무역, 투자 및 에너지 흐름의 변화, 지역안보 문제, 정치적 관계의 변화와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미국의 정책 변화 방향이 논의되었다.

최근동향

신임 회장 선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11월 20일 제20차 총회를 열어 양수길(楊秀吉)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63)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양수길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5차 회의

(2006. 11. 9.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2006년 아·태지역협력체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5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11월 9일 개최하였다. 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 회의에는 정부 담당관들이 초청되어 APEC, 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역내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상열 사무국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팀장 겸임)은 APEC에 대한 발제에서, 동아시아 협력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소외된 미국이 APEC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FTAAP의 실현가능성 논의를 주도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APEC에 강제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APEC이 정부간 협상 채널이지만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에는 민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정인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장은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대한 발제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ASEAN+3의 궁극적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 공감대 형성이 힘든 상황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경우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ASEAN+3의 경우 금융위기 재발 방지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대변되는 금융협력 쪽에서 성과가 가장 크며 동아시아무역지대 논의와 같은 무

역분야의 진전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아시아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역내 큰 이슈에 대한 정상들의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홍성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은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금융협력은 ASEAN+3 내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아시아 채권 시장, 민간연구협력을 중심으로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지역협력 논의 중 우리나라가 거시적으로 어떤 논의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와 학계 등 민간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06년 KOPEC 이사회 및 총회

(2006. 11. 20.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0차 총회 및 제3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기환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해 소집된 제20차 총회에서 양수길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임되었다. 참석자들은 김기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임함으로써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양수길 신임회장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

을 제언하였다.

이어 개최된 제23차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결과, 2006년 사업실적이 보고되어 원안대로 접수되었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안), 2007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계획(안)은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노재봉(주)효성 상무를 선임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KOPEC 아·태전략포럼 제6차 회의

(2006. 12. 14,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과와 전망(Korea-US FTA Negotiations: Progress and Prospects)’을 주제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IE)의 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지난 12월 14일 아·태전략포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arcus Noland 교수는 이미 탈공업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 FTA 논의가 지나치게 상품교역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경제관계가 서비스 부문 등 비상품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농업과 반덤핑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미 의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잘 조직된 농업부문 로비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반덤핑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한 해 25억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한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지만, 반덤핑은 미국이 사용하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규제완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내년 6월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연장 가능성은 부정적이며, FTA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시적인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출판물



- ◆ Evaluation of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ased Lines in the APEC Region, November 2006
- ◆ 2006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PEC Secretariat to the 18th APEC Ministerial Meeting, November 2006
- ◆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Proceedings, November 2006
- ◆ Workshop on Effective Strategies for IPR Public Education-Proceedings, November 2006
- ◆ APEC IPR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Platform, November 2006
- ◆ Enhancing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tage 1): Reducing Barriers to Investment across APEC to Lift Growth and Lower Poverty, November 2006
- ◆ APEC Review on Counter-Terrorism, 2001-2006, November 2006
- ◆ APEC Customs-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s, September 2006
- ◆ Public-Private Dialogue on Trade Facilitation-Proceedings, May 2006
- ◆ 4th APEC SOM Policy Dialogue on RTAs/FTAs, May 2006
- ◆ Handbook on Prepackaged Goods, Part of the APEC/APLMF Training Courses in Legal Metrology July 2006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trategies, September 2006
- ◆ Trade Facilitation (Shanghai Accord) Report, September 2006
- ◆ APEC Workshop on Best Practices in Trade Policy for RTA/FTAs, 2006
- ◆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5/2006
- ◆ APEC at a Glance, 2005/2006
- ◆ Trade Facilitation Brochure, 2005/2006
- ◆ Networking Asia-Pacific : A Pathway to Common Prosperity, 2005
- ◆ A Mid-term Stocktake of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2005
- ◆ Patterns and Prosp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in APEC, 2005
- ◆ Impact of Oil Price on Trade in the APEC Region, 2005
- ◆ Follow up Study: Impact of APEC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2005
- ◆ 2005 Key APEC Documents(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M)
- ◆ Capacity Building for Trade and Facilitation, 2005
- ◆ SSCP: Blueprint: Towards One Community, 2005
- ◆ 2005 APEC Economic Outlook
- ◆ APEC Energy Overview, 2005
- ◆ Quantitative Methods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2005
- ◆ 2004 APEC Documents (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M)
- ◆ Realising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Potential in APEC, November 2004
-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From Shanghai to Bogor, November 2004
- ◆ Bridging the Pacific: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2004: ABAC Report to APEC Economic Leaders
- ◆ Harmony in Diversity: Achieving Balanced and Equitable Growth: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3
- ◆ Drivers of The New Economy in APEC, October 2003
- ◆ 2003 Key APEC Documents
- ◆ Sharing Development to Reinforce Global Security :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2
- ◆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002
- ◆ Application of E-commerce Strategies to Small and Medium Sized Tourism Enterprises in the APEC Region, 2002
- ◆ The New APEC Economy :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2002
- ◆ 2002 Key APEC Documents
- ◆ APEC High level Meeting on Human Capacity Building, Selected Documents, 2001
- ◆ 2001 Key APEC Documents
- ◆ New Economy and APEC, 2001
- ◆ 2000 Key APEC Documents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kimhs@kiep.go.kr
Tel : 02-3460-1096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jt@apec.org
Tel : 65-6775 6013
Fax : 65-6775 6012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 State of the Region,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 Finance Forum CD: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 ◆ ISSUES@PECC 시리즈
 - Developing Bond Markets in the APEC Region: Need and Agenda for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PECC Scorecard Initiative for Tracking Progress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ks,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Recommendation of Launching an APEC Peer Review Process Assessing Progress on Domestic Reform, 2004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 Interim Assessment and Challenges to APEC, 2004
 - Developing an Asian Bond Market: Rationale, Concerns, and Roadmap, 2004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Community Building

-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Outlooks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PECC, KOPEC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E-mail: kopecsec@kopec.or.kr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향후행사일정

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January 2007		
15-26 January Canberra, Australia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I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17 January Canberra, Australia	Meeting of SCE	
18 January Canberra, Australia	Meeting of Senior Officials	
19-20 January Canberra, Australia	Meeting of CTI	
21-22 January Canberra, Australia	Meeting of EC	
February 2007		
12-16 February Perth, Australia	3rd APEC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Mining	
March 2007		
04-09 Mar Hobart, Australia	14th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28-30 March Adelaide, Australia	5th APEC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tbc Osaka, Japan		PECC PEO Forecasters Meeting 2007-2008